

<http://dx.doi.org/10.17703/JCCT.2023.9.5.245>

JCCT 2023–9–30

## 예비유아교사의 현실충격과 학교소진이 진로탐색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Reality Shock and School Burnout on Career Search Self-Efficacy

이 해 정\*, 엄 세 진\*\*

Hae Jung Lee\*, Se Jin Eom\*\*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유아교사의 진로탐색 측면에서 개인적 변인인 학교소진과 환경적 변인인 현실충격이 예비유아교사의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예비유아교사 195명을 대상으로, 기술통계 및 Pearson 적률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현실충격, 학교소진, 진로탐색효능감의 인식수준은 보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현실충격과 학교소진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 현실충격과 진로탐색효능감, 학교소진과 진로탐색효능감 간에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현실충격, 학교소진이 진로탐색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진로탐색효능감 증진을 위한 교육적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예비유아교사, 현실충격, 학교소진, 진로탐색효능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reality shock and school burnout on career search self-efficacy. The study participants were 195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had relatively high level of reality shock, school burnout, and career search self-efficacy.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reality shock and school burnout and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reality shock, school burnout, and career search self-efficac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hird,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reality shock and school burnout significantly influenced career search self-efficacy. The result of this study provides educational basic data on an early childhood teacher training program in improving career search self-efficacy.

**Key words** :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reality shock, school burnout, career search self-efficacy

\*정회원, 부산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제1저자)

\*\*정회원, 부산디지털대학교 아동보육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7월 30일, 수정완료일: 2023년 8월 23일

게재확정일: 2023년 9월 5일

Received: July 30, 2023 / Revised: August 23, 2023

Accepted: September 5, 2023

\*Corresponding Author: sjeom@bdu.ac.kr

Dept. of Child & Education, Busan Digital University, Korea

## 1. 서론

사람이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경제적 자립이고 이 경제적 자립은 취업에 성공함으로써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통계 중 학생의 주된 목적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가 48.6%,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서’가 36%로 나타나 취업과 직접적으로 대학교육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대학의 학과는 대학생들의 진로와 더욱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최근 한 대학의 대학생 인식조사에서도 대학을 다니는 이유가 ‘취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의 학과선택이 진로와 직결됨을 보여주었다[1].

대학의 학과들 중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학과는 취업과 직결되는 학과이다.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유아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에 대해 교육하게 된다. 이에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대부분 졸업 후 유아교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교육내용 또한 순수 학문보다는 응용 학문에 가깝다. 이에 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 갖게 되는 예비유아교사의 경험이 교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핵심 요인이 된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의 학교생활 경험은 유아교사라는 진로와 연결되며 학교생활 전반에서 겪는 다양한 사회심리적 경험이 예비유아교사의 진로탐색효능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예비유아교사의 학과만족도와 학과적응이 그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결과[2, 3]가 있어 예비유아교사가 유아교사로 성장해가는 터전인 학과에서의 사회심리적 현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학교소진과 현실충격이라는 요인은 예비유아교사들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진행하는 진로탐색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교사양성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교사교육과정에서 현실충격과 학교소진을 방지하여 예비유아교사가 자신의 학업이나 진로에 있어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교직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예비유아교사 대상의 진로탐색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로탐색효능감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구인이 진로와 관련하여 적용된 개념으로 진로결정 및 진로

탐색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과 관련된다[4]. 진로탐색효능감은 행동의 주된 원인으로 가정되며 진로선택 및 탐색과 관련된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과 관련된 효능감을 지칭한다. 진로발달은 진로를 결정하고 탐색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진로탐색은 크게 자기에 대한 탐색과 환경에 대한 탐색으로 구분된다[5].

예비유아교사는 실습과 학교생활을 통해 현실충격을 받고 유아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자신감을 잃게 되며, 유아교사가 되기로 했던 동기를 상실하고 유아교사라는 직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예비유아교사들이 학교생활과 실습에서 경험하는 현실충격을 완화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교사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예측된다. 또한, 예비유아교사가 자신의 진로탐색효능감을 제대로 알고 진로결정을 바르게 선택하는 것은 교사의 질은 물론 교육의 질이 향상되는 길이기도 하다. ‘현실충격’이라는 용어는 Veenman(1984)에 의해 교사교육 전공분야에서 처음 소개되었다[6]. 일부 초임교사들이 오랜 시간을 준비하고 현장에 부임했음에도 초임교사가 초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교사라는 직업을 떠나게 되는 원인을 이해하고자 현실충격이라는 변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7].

학교소진은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과도한 업무나 어떤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의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탈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8]. 학교소진의 개념이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되지 시작하면서 학업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만성적인 학업 스트레스와 과도한 학업량, 그리고 여러 심리적 요인들에 의해 학업에 대한 심리적 피로와 정서적 고갈 및 냉소를 보일 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자신감이나 개인적 성취감이 결여되는 상태가 학교소진이다. 대학생은 직원이나 고용주가 아니지만 학업 수행의 의무와 책임을 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의무와 책임은 곧 소진이 될 수 있다[9]. 대학생 소진의 주요 원인은 과중한 학업요구[10], 목표에 따른 지나친 노력 요구[11] 등으로 요구 및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은 높은 수준의 학업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교소진을 경험하는 예비유아교사는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우울, 불안, 긴장감, 문제행동 등의 상황에 노출될 수도 있다. 특히 예

비유아교사가 경험하는 학교소진은 유아교사라는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지연시키는 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대학생들의 주요 환경인 학교라는 환경은 그들의 진로탐색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변인이지만[12] 예비유아교사들이 실제 진로탐색과정에서 학교에서 경험하는 현실적 환경과 이로 인해 그들이 겪는 학교소진 등 환경적 변인의 영향을 파악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의 진로탐색효능감과 진로발달을 이해하기 위하여 자기에 대한 탐색의 측면에서 학교소진을, 환경에 대한 탐색의 측면에서 현실충격을 변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유아교의 진로탐색 측면에서 학교소진과 현실충격이 예비유아교사의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예비유아교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밝혀 예비유아교사의 진로탐색효능감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바람직한 진로 지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예비유아교사의 현실충격과 학교소진, 진로탐색효능감의 인식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예비유아교사의 현실충격과 학교소진 및 진로탐색효능감 간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예비유아교사의 현실충격과 학교소진은 진로탐색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 227명을 임의표집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지 회수 결과 227부 중 212부가 회수되어 93.3%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충실히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 17부를 제외한 최종 195부를 통계처리하였다. 일반적 배경 중 연령은 만 20세 69명(35.4%), 만 19세 49명(25.1%), 만 18세 31명(15.9%), 만 21세 17명(8.7%), 만 22세 15명(7.8%), 만 23세 이상 14명(7.2%)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여자 182

명(93.3%)과 남자 13명(6.7%)로 구성되어 있다.

### 2. 연구도구

예비유아교사의 현실충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Kramer(1974)가 개발한 척도에 대해 윤희장(2018)이 번역하고, 이를 빈진영(2018)이 유아교육에 맞게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13, 14]. 현실충격은 지지부족 7문항, 현실실망 6문항, 업무압박 4문항, 자신감결여 5문항 그리고 과도한 책임 2문항 등 총 5개 하위요인(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고, 높은 점수일수록 현실충격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점수화하였다. 현실충격의 Cronbach'  $\alpha$  는 지지부족 .90, 현실실망 .89, 업무압박 .86, 자신감결여 .87, 과도한 책임 .76, 그리고 전체 .96으로 나타났다.

예비유아교사의 학교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이미라(2018)가 개발한 학교소진 척도를 사용하였다[15]. 학교소진 척도는 정체성 혼란 6문항, 학교생활 무기력 4문항, 수업 부적응 4문항, 진로 불안 6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소진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  $\alpha$ 는 정체성 혼란 .92, 학교생활 무기력 .89, 수업 부적응 .89, 진로 불안 .90, 그리고 전체 .95로 나타났다.

예비유아교사의 진로탐색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Solberg, Good, Nord, Holm, Hohner, Zima, Heffernan, 그리고 Malen(1994)이 제작한 진로탐색효능감 척도(Career Search Efficacy Scale: CSES)를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최옥현(2006)이 수정 및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16]. 직업탐색효능감 6문항, 면접효능감 5문항, 관계구축효능감 5문항, 개인적 탐색효능감 4문항 등 총 4개 하위요인(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고,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탐색 과업을 수행하는 확신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  $\alpha$ 는 직업탐색효능감 .93, 면접효능감 .89, 관계구축효능감 .91, 개인적 탐색효능감 .89 그리고 전체 .97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부산광역시 전문대 유아교육과 재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유아교사의 현실충격, 학교소진, 진로탐색효능감에 대한 설문내

용의 이해와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예비조사 후 유아교육 전문가 3인을 통해 검토받은 최종 설문지를 가지고, 유아교육과 재학생 227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이 본 연구 목적을 사전에 설명한 뒤, 연구협조에 동의를 구하였다.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19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 4. 자료처리

본 연구는 Window용 PASW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설문지를 자료처리하였다. 연구문제 1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현실충격, 학교소진, 진로탐색효능감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연구문제 2에서는 각 변인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3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현실충격과 학교소진이 진로탐색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 III. 연구결과

#### 1. 예비유아교사의 현실충격, 학교소진, 진로탐색효능감의 인식

예비유아교사의 현실충격, 학교소진, 진로탐색효능감의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 전체 평균은 진로탐색효능감 3.87(SD=.72), 현실충격 2.49(SD=.87), 학교소진 2.19(SD=.8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실충격 하위요인별에서는 과도한 책임 3.30(SD=1.09), 업무압박 2.70(SD=1.03), 자신감결여 2.66(SD=1.04), 현실실망 2.31(SD=.90), 그리고 지지부족 2.18(SD=.90)순으로 높았다. 학교소진 하위요인별의 경우, 학교생활 무기력 2.56(SD=1.11)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수업 부적응 2.17(SD=1.01), 진로 불안 2.12(SD=.97), 정체성 혼란 2.04(SD=.96)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탐색효능감 하위요인별에서는 관계구축효능감 3.94(SD=.76)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개인적 탐색효능감 3.89(SD=.77), 면접효능감 3.88(SD=.74), 직업탐색효

능감 3.80(SD=.80) 순으로 나타났다. 왜도는 절대값 2 이하, 첨도는 절대값 7 이하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 예비유아교사의 현실충격, 학교소진, 진로탐색효능감 간의 관계

예비유아교사의 현실충격, 학교소진, 진로탐색효능감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현실충격과 학교소진 .68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 $p<.01$ ), 현실충격과 진로탐색효능감 -.40, 학교소진과 진로탐색효능감 -.42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 $p<.01$ )이 있었다. 또한 예비유아교사의 현실충격과 학교소진 하위요인 간의 상관에서는 .22에서 .68 사이의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감결여와 학교생활무기력 .68로, 자신감결여 점수가 높아질수록 학교생활무기력 점수가 높아지게 된다. 예비유아교사의 현실충격과 진로탐색효능감 간의 상관에서는 -.20에서 -.42 사이의 모두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지지부족과 관계구축효능감 -.42로, 지지부족 점수가 높아질수록 관계구축효능감 점수가 낮아지게 된다. 학교소진과 진로탐색효능감 하위요인 간의 상관에서는 -.23에서 -.45 사이의 모두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은 정체성 혼란과 관계구축효능감 -.45로, 정체성 혼란 점수가 높아지면 관계구축효능감 점수는 낮아지게 됨을 시사한다.

#### 3. 예비유아교사의 현실충격, 학교소진이 진로탐색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1) 예비유아교사의 현실충격, 학교소진 총점이 진로탐색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예비유아교사의 현실충격과 학교소진이 진로탐색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Durbin-Watson에 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1.70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상분포 곡선을 의미하는 기준값이 2에 근접하므로 잔차에 대한 상관이 낮아 가정을 충족하게 되며, 이는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17].

예비유아교사의 현실충격과 학교소진 총점이 진로탐색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결과,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예비유아교사의 현실충격과 학교소진이 진

로탐색효능감을 20% 정도 설명하고 있다. 특히 학교소진이 17%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보인다. 또한 F값 23.52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위의 회귀모형식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예비유아교사의 현실충격과 학교소진 총점이 진로탐색 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Table 2. Relative Effect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otal Scores of Reality Shock and School Burnout career search self-efficacy

(N=195)

|   | 독립 변수 | B    | $\beta$ | t        | $R^2$ | $R^2$ 의 변화량 | F        | VIF  |
|---|-------|------|---------|----------|-------|-------------|----------|------|
| 1 | (상수)  | 4.63 |         | 36.27*** | .17   |             | 40.51*** | 1.00 |
|   | 학교 소진 | -.35 | -.42    | -6.37*** |       |             |          |      |
| 2 | (상수)  | 4.80 |         | 32.94*** | .20   | .36         | 23.52*** | 1.88 |
|   | 학교 소진 | -.23 | -.27    | -3.08*** |       |             |          |      |
|   | 현실 충격 | -.17 | -.21    | -2.36*** |       |             |          |      |

\*\*\*  $p < .001$

2) 예비유아교사의 현실충격과 학교소진 하위요인이 진로탐색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예비유아교사의 현실충격과 학교소진 하위요인이 진로탐색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Durbin-Watson에 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1.86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예비유아교사의 학교소진 중 정체성 혼란, 학교생활 무기력과 현실충격 중 자신감 결여가 진로탐색효능감을 26%를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체성 혼란이 20%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진다. 그리고 자신감결여가 첨가됨으로써 설명력이 3% 증가하고, 학교생활 무기력이 첨가되면 3%가 증가하여 전체 26%의 설명력을 가지게 된다. 또한 F값 22.71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위의 회귀모형식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예비유아교사의 현실충격과 학교소진 하위요인이 진로탐색 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Table 2. Relative Effect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Reality Shock and School Burnout career search self-efficacy

(N=195)

|   | 독립 변수    | B    | $\beta$ | t        | $R^2$ | $R^2$ 의 변화량 | F        | VIF  |
|---|----------|------|---------|----------|-------|-------------|----------|------|
| 1 | (상수)     | 4.56 |         | 42.10*** | .20   |             | 48.49*** | 1.00 |
|   | 정체성 혼란   | -.34 | -.45    | -6.96*** |       |             |          |      |
| 2 | (상수)     | 4.73 |         | 36.51*** | .23   | .03         | 27.81*** | 1.54 |
|   | 정체성 혼란   | -.25 | -.33    | -4.23*** |       |             |          |      |
|   | 자신감 결여   | -.13 | -.19    | -2.43*** |       |             |          | 1.54 |
| 3 | (상수)     | 4.67 |         | 36.44*** | .26   | .03         | 22.71*** | 2.24 |
|   | 정체성 혼란   | -.37 | -.50    | -5.35*** |       |             |          |      |
|   | 자신감 결여   | -.22 | -.31    | -3.62*** |       |             |          | 1.92 |
|   | 학교생활 무기력 | .21  | .32     | 3.15**   |       |             |          | 2.68 |

\*\*\*  $p < .0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들의 현실충격과 학교소진이 진로탐색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는 진로탐색효능감, 현실충격, 학교소진의 순으로 인식수준은 보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유아교사가 자신의 진로선택 및 탐색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과 관련된 진로탐색효능감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뜻한다. 이는 예비유아교사 대상 연구[18, 19], 초등학교교사 대상 연구[20], 사범대 예비교사[21],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2]에서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하여 목표설정과 미래계획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즉, 유아교육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전공선택과 진로선택이 비교적 일치하

는 경향이[23] 예비유아교사들이 진로탐색 활동을 수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예비유아교사가 신규교사로서의 역할수행의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은 험난한 여정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경험하게 됨에 따라 자신의 진로선택에 필요한 기술 및 능력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한 자기탐색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현실충격 하위요인별로는 과도한 책임, 업무압박, 자신감 결여, 현실 실망, 지지 부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보육교사의 개인적 변인이 보육교사가 된 후 맞이하게 될 현실충격을 다룬 연구결과[24], Veenman(1984)에 의하면 교사 훈련을 이수하는 동안 형성된 이상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예상치 못한 일상의 현실로 인해 붕괴되는 것으로 정의한 바를 뒷받침한다[25]. 즉, 예비유아교사 시기의 기대와 학문적 가치가 현실의 실무적 기대행위와 가치 차이 간의 불일치감과 무력감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되나 현실충격 이후에 가치관을 재정비하여 현실에 실현할 수 있는 가치관으로 재형성함으로써 현실에 적응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연구결과로 볼 때[9], 현실충격 요인들을 상쇄할 수 있는 조절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학교소진 하위요인별로는 학교생활무기력, 수업 부적응, 진로불안, 정체성 혼란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무기력 설문 문항에서 ‘나는 과제가 너무 많아 짜증이 난다’ 등 학교생활 중 과중한 학업량과 학업에 대한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학업성취뿐 아니라 학업 지속 의향, 학교행사와 같은 학교 과업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전반적으로 귀찮은 기분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를 호소하고[14], 학교소진을 느끼는 학생의 경우 학업적인 문제가 나타났음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26]. 이는 예비유아교사가 학업적인 문제와 심리 정서적 소진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일 때, 실망을 느끼고 그러한 지루함 때문에 학교소진에 이르는 연구[27]로 볼 때, 교사 양성과정에서의 교직원 확립, 개인적인 변인으로서의 교직선택동기, 적성, 교육실습 과정과 교직 환경 이해 등 예비유아교사들이 자신이 교직에 적합한지 여부를 고민하고 교직을 수행하도록 소진을 경험할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진로탐색효능감 하위요인별로는 관계구축효능감, 개인적 탐색효능감, 면접효능감, 직업탐색효능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육과는 졸업 후 진로가 비교적 해진 목적형 학과로 입학 시 어느 정도 진로 방향성을 갖고 학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22]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예비유아교사는 자신의 진로선택과 계획, 자신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주로 관계해야 할 사람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 자신의 희망 직업과 관련된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중요성[5]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진로탐색효능감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예비교사의 실습에서 학과에 대한 만족도와 같은 환경적 요인보다 개인적 차원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연구결과[17]로 볼 때, 진로탐색효능감이 높은 경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고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예비유아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결정하고, 실제적인 준비를 하는 미래 진로를 성취하기 위한 관리능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현실충격, 학교소진, 진로탐색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현실충격과 학교소진, 현실충격과 진로탐색효능감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교소진의 주요 원인으로 과중한 학업요구[28], 목표에 따른 지나친 노력 요구 등으로 요구 및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은 높은 수준의 학업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10]와 맥을 같이한다. 진로탐색효능감은 진로선택 및 탐색과 관련된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과 관련된 효능감 기대로서 교사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개인이 교사가 되길 원하고, 교직에 머무르고자 하는 의지를 높여 예비유아교사로서 가질 수 있는 현장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교직을 준비하기 위한 진로탐색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비유아교사의 현실충격과 학교소진 하위요인 간에는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특히 자신감결여 점수가 높아질수록 학교생활무기력 점수가 높았다. 이는 예비보육교사의 현실충격 불안에서 자신이 맡게 될 미래의 교실에서 다루기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경향이 나타난 연구결과[23]와 교사효능감 저하를 초래했다는 연구결과[6]. 학업과제가 많을수록 학업소진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밝힌 연구결과[29]와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유아교사의 현실충격의 정도는 학교생활적응 및 만족도뿐 아니라 교사효

능감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의 현실충격이라는 심리적 갈등을 조절하고 학교소진 양상에 대처할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예비유아교사의 현실충격과 진로탐색효능감 하위요인 간에는 부적인 상관성이 나타났다. 특히 지지부족 점수가 낮을수록 관계구축효능감 점수가 낮아졌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학생일수록 학업소진을 많이 경험하고 부정적인 학교환경에 처할수록 학업소진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연구결과[30]를 지지한다. 따라서 지지가 소진을 보호하는 주요 변인으로써 학교소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소진과 진로탐색효능감 하위요인 간에는 부적인 상관성이 나타났다. 특히 정체성 혼란 점수가 높아지면 '취업에 대한 확신이 없어 불안하다' 관계구축효능감 점수가 낮아졌다. 예비유아교사는 대학생 시기에 취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겪으며 정신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정체성 혼란은 대학생 및 현재 자신의 선택에 대해 불확실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초등 예비교사들이 자신이 교직에 적합한 지 여부를 고민하고 교직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교직을 수행할 때 소진을 경험할 가능성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한 연구[31], 취직의 용이성을 이유로 교직을 선택한 경우 소진 경험 가능성이 높았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20]. 이는 예비유아교사로서 교사가 되길 원하고 교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높을 때 소진경험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의 진로탐색효능감 향상을 위하여 예비유아교사의 학교생활 경험이 유아교사라는 진로와 연결되며 학교생활 전반에서 겪는 다양한 사회 심리적 경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현실충격, 학교소진이 진로탐색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예비유아교사의 현실충격, 학교소진이 진로탐색효능감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양한 대상의 여러 실증적 선행연구에서도 증명되고 있는 등 여러 집단의 연구결과가[18-20] 본 연구결과와 일관되게 일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교사와 초등교사의 초임시의 현실충격의 경험이 전공과 학교환경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로 볼 때[25], 예비유아교사의 현실충격은 이론과 현실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충격으로 교사직을 계속할 것인지 또는 그

만들 것 인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뒷받침한다[7]. 특히 본 연구에서 현실충격, 학교소진이 진로탐색효능감에 미치는 설명력이 20%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대학생의 학교소진이 진로탐색효능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이라고 설명한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고[31], 한편, 현실충격은 흔히 생각하는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단기적 현상으로 이해하면 안된다는 주장[6]을 뒷받침하고 있다. 예비유아교사가 자신의 진로탐색효능감을 제대로 알고 진로결정을 빠르게 선택하는 것은 교사의 질은 물론 교육의 질이 향상되는 길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들이 교직의 현실들을 파악하고 적응하는 양질의 효과적인 교사교육교사교육프로그램과 교직 환경개선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예비유아교사의 학교소진 중 정체성혼란, 학교생활무기력과 현실충격 중 자신감 결여가 진로탐색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교사로서의 삶을 그려나가는 교사 양성과정 시기의 전반적인 경험에서 현실충격과 학교소진이 진로탐색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사교육의 질과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교사가 되어가는 교사교육과정에서 학교소진과 현실충격을 방지하여 예비유아교사가 자신의 학업이나 진로에 있어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교직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예비유아교사 대상의 진로탐색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부산지역에 소재한 전문대학의 예비유아교사로 제한되어 있어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예비유아교사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그 범위를 넓혀 다른 지역의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진로탐색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으로 현실충격과 학교소진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세밀하고 포괄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 References

- [1] Professor Newspaper: 'Employment and education' reasons why college students go to college these days: <https://www.facebook.com/kyosunet/posts/704318736366058/> 2015년 7월 26일
- [2] G.S. Shin. "Relationship among Psychological Well-being, Major Adjustment, Career Decision Level, and Religious Activitie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Vol. 48, No. 2, pp. 1-20, 2009.
- [3] H.I. Hwang, H.J. Choi, and B.M. Kim, "Impact of Happiness and Optimism on Satisfaction with the Department among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Vol. 16, No. 6, pp. 405-434, 2012.
- [4]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 84, No. 2, pp. 191-215, 1997.
- [5] O.H. Chae, The Influe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 and Style and Career Search Self-efficacy on Career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7.
- [6] S. Veenman, "Perceived Problems of Beginning Teacher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 54, No. 2, pp. 143-178. 1984.
- [7] J.Y. Bin. Differences i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Major Transition and Reality Shock according to their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Kookmi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8.
- [8] A. Bünyamin, "Effect of Solution Focused Group Counseling for High School Students in Order to Struggle with School Burnout". *Journal of Education and Training Studies*, Vol. 4, No. 4, pp. 27-34. 2016.
- [9] D.Y. Jang. Effects of Motivation of Choosing a Teaching Profession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on Academic Burnout, Mediated by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Gri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20.
- [10] M. S. Chae, Multiple Mediated Effects of Test Anxiety and Depression in the Relation between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Academic Burnou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6.
- [11] J.H. Sung,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Part-time Work Experience on University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8, No. 1, 141-151 (2020). DOI <https://doi.org/10.17703/IJACT.2020.8.1.141>.
- [12] D.S.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Organizational Health and Teacher's Sense Efficacy Perceived by Elementary Teachers, Korea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6.
- [13] M. Kramer. Reality Shock; Why Nurses Leave Nursing. Saint Louis, CV Mosby. 1974.
- [14] H.J. Yun. Development of the Reality Shock Scale for New Graduate Nurses, Inha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8.
- [15] M.R. Lee, Development of School Burnout Scale for College Students, Mokpo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8.
- [16] V.S. Solberg, G. E. Good, D. Nord, C. Holm, R. Hohner, N. Zima, M. Heffernan, and A. Malen, "Assessing Career Search Expectation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er Search 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 2, No. 2, pp. 111-123, 1994.
- [17] H.I. Hwang, Y.S. Song, H.J. Choi, and W.K. Son. SPSS Data Analysis for Easy Learning. Kyungki: Gongdondchae. 2016.
- [18] G.J. Youn, and J.J. Cha,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Sense of Calling, Career stress,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Department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pp. 156-156, 2015.
- [19] H.W. Chung,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ediated by Career Attitude Maturity, on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 31, No. 1, pp. 95-115, 2014.
- [20] J. Y. Kim. The relat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Motivation for Selecting Teaching Profession and Occupational View on Teaching Profession and Burnout Experience.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0.
- [21] Y.G. Lee, "Relationship between Department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Efficacy in Pre-Service Teachers in a College of Educa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Vol. 40, No. 2, pp. 527-545, 2020.
- [22] H.J. Jung, "A Study on the Major Perception of Nursing Freshme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3, pp.145-151, May 31, 2023. <https://doi.org/10.17703/JCCT.2023.9.3.145>.
- [23] J.O. Joo, and J.Y. Song, "Relationship of



- Department Satisfaction to Career Decision Level i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 20, No. 3, pp. 287–301, 2011.
- [24]J.Y. Ha, and Y.E. Kim, “The Effects of Variables on Expectation of Reality Shock of Pre-service Childcare Teacher: Focusing 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Resilience, Self-efficacy and Perfectionism”,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11, No. 5, pp. 333–352, 2015.
- [25]H.J. Kim, “A Study of Reality Shock and Teacher Efficacy among In service Teachers: Focus on Early Childhood and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7, No. 2, pp. 151–173, 2012.
- [26]K.H. Sin, J.O. Kwon, and E.Y. Kim, “Factors Associated with New Graduate Nurses' Reality Shock”,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20, No. 3, pp. 292–301, 2014.
- [27]M.S. Chae, “Multiple Mediated Effects of Test Anxiety and Depression in the Relation between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Academic Burnou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6.
- [28]H.J. Joo, The Relation between Excessive Academic Demands and Academic burnout of High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Failure Toleranc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2.
- [29]S.M. Lee, Academic Burnout Progress and Path Analysi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ipmundang: 2012.
- [30]H.A. Seo, A Study of the Effect of Student Teaching on the Teaching Profession Choice as an Experienced Curriculum, Korea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8.
- [31]G.S. Shin, “Relationship among Psychological Well-Being, Major Adjustment, Career Decision Level, and Religious Activitie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eacher Education Research*, Vol. 48, No. 2, pp. 1–20, 2009.